

-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33호
10월 7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교단 제72차 총회 제5회 임원회

“한·미동맹 강화로 북핵야욕 봉쇄”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 법 개정 청원 참여...추락한 교권 회복 위해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금선순복음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2차 총회 제5회 임원회가 지난 9월 19일(화) 오전 11시 학원순복음교회(담임 정진균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부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기도,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담화 2:15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할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쓸 때,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노리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고, 성공적인 교회가 되기보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날마다 바른 결



음을 걸어갈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총무보고 사항으로 목사고시 오리엔테이션 등을 보고했다. 이어 회계보고로 재무 백영자 목사의 수입 보고, 회계 조선훈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결의 및 안건토의 각종 청원 사항으로 교회주소변경 보고, 임원회의 일정 등이 보고·결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 부흥사회 21명의 회원들이 9월 17일(주일)부터 22일(금)까지 태국선교지(김학봉 선교사)에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법 개정 청원에 참여하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임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전되어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모로코의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한국의 젊은 이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아울러 동성간 결합 법적 가족 인정 및 법적 혜택 반대, ‘생활동반자법’ 제정저지를 위해 기도했으며 이단 사이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비정상적 만남에 대해, 북한의 핵무장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 한미일 공조의 폭을 확대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국가안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좌편향 왜곡된 교과서로 교육이 어긋나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 교과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정부 차원의 대처가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홍보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조용목 목사 명예고문으로 추대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김중우 목사 외 임원진들은 지난 9월 22일(금) 은혜외진리교회(당회장 조용목 목사)를 방문 조용목 목사에게 명예고문 추대패를 전달하고 그동안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의 사역을 위해 큰 헌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명예고문으로 추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김중우 목사, 고문 김병목 목사(예하성 총회장), 사무총장 이재웅 목사를 비롯 임원진들은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많은 사역을 함께 해 협력 지원해 주심과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감사드리다고 전하고 이렇게 그 공을 기려 명예고문으로 추대하게 됨을 감사드리다고 했다.



2024년도 목사고시대상자 오리엔테이션

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 등 안내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는 지난 9월 21일(목) 오전 10시 총회본부에서 2024년도 목사고시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목사고시 일정 등 목사고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고시위원회 서기 이경진 목사의 사회,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기도에 이어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롬 12:2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는 사역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 이 시대의 모습을 바로 보고 분별하는 사역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

리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담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한 뒤 고시생들을 축복했다.

이석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임원을 선출하는 등 연례사항을 구축했으며 목사고시 문제집 발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목사고시는 2024년 1월 29일(월) 오전 10시부터 치러지며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행정학, 목회윤리학, 헌법, 기독교교육학, 교회성경학 등의 과목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성경고시는 2024년 1월 30일(화) 모세오경, 역사서(구약),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등의 과목에 대해 주권신학과 객관식 문제들이 출제되어 평가를 하게 되며 설교 및 면접은 성경고시 이후 실시된다.



‘절대적 판단기준과 적용’



조용목 목사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수 1:7,8)

우리는 여러 신체 기관들의 기능에 의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경험, 관습, 제도, 규약, 법 등을 기준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계시되어 있는 책이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 절대적 기준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그 절대적 기준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적용의 범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립들에게 관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하시고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여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의 남부 경계선인 비란 골에 가네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열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온 땅을 40일에 걸쳐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느낀 것은 열두 명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하는 일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과학적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열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현실 상황에 대한 견해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측면에서의 견해는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절망감을 느끼며 반세도록 한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 그들의 말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아찌하여 여호와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고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치럼 왜곡하고 악행하는 대까지 이르게 되면 재기불능

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백성들은 또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정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절대적 기준을 내버렸기 때문에 육에 속한 정보, 불신앙적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정서적인 혼돈에 빠졌고, 지도자를 원망했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부정적인 예측을 했고, 망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는 것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대개 마음에 느끼는 격렬한 슬픔이나 엄청난 고통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해,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외쳤습니다. 먼저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사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정확하게 말하게 됩니다. 열 정탐꾼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고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정보 그 자체가 우리를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보에 대한 분별과 선택과 결단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일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진실과 정능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은혜외진리교회)

6.25 전쟁 상흔 을지부대 유해발굴 현장찾아

을지부대-자유민주주의 위해 희생한 분 유해발굴 최선

본 교단 군선교위원회 위원장 박순용 목사와 국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9월 22일(금) 6.25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는 을지부대 유해발굴 현장 찾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했다.

부대장은 위로 방문한 교단 목회자들에게 이름 없는 산골짜기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곳까지 오셔서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예하성 교단 목사님들께 감사의 드리며 아직 찾지 못한 유해를 조속히 발굴하여

유가족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선교국장 정석현 목사는 요 12: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희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땅을 흘리는 수고가 있으며 여러분들의 수고로 유해발굴을 기다리는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 줄 것으로 믿고 또한 여러분들은 이 같은 일이 인생에 가장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장병들의 건강과 사명감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원하고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여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간구했다.

한편 장병들을 위해 경기남부지방회 후원으로 준비한 간 위분품들을 나누어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예장합동 오정호 목사 총회장에 추대

제108회 정기총회 목사부총회장 김종혁 목사 당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제108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18일(월) 대전 새로운교회에서 개회한 가운데, 차기년도 총회장에 추대될 목사부총회장에 울산 명성교회 김종혁 목사가 당선됐다. 현 부총회장인 오정호 목사는 관례대로 총회장에 추대됐다.

그밖에, 부서기에는 임병재 목사(영광교회)가, 그리고 부회록서기는 김종철 목사(큰빛교회)가, 부회계는 이민호 장로(영북예관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4년 임기의 총무에는 박용규 목사(가정교회)가 현 고영기 목사를 제치고 선출을 받았다.

4박 5일간 치러질 이번 예장합동 108회 총회에서는 임원선거 외에도 사회가 총회의 비전을 세워갈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총회는 먼저 여성 사역자 안수 및 강도권 부여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 70세로 규정돼 있는 목사 장로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 지침서' 채택 여부도 관심을 모았다.

그밖에도 '총대 연금 의무가입'의 폐지와 대외제 시행, 총회 연금 의무가입 존폐 여

부, 총회 제주선교센터 건립사업, 새표준에서 출간, 헌법개정, 미래정책전략을 위한 총회정책연구소 설립, 총남노회 폐쇄 후속 처리 등이 주요 현안으로 올라왔다.

한편 '교회에 일어나라'를 주제로 개회한 이번 총회는 4박 5일간 화무와 일정을 진행한 뒤, 22일 폐회했다.

예장통합, 총회장에 김의식 목사

108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김영걸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8회 정기총회가 '주어, 지유하게 하소서(출 15:26, 사 53:4-5, 살전 5:23)'를 주제로 9월 19일 서울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에서 개회했다.

총회는 총 1,500명의 총대 중 과반수인 1,089명(목사 750명 중 524명, 장로 750명 중 565명)이 참석했으며 곧바로 이어진 임원선거에서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지유하는교회)를 총회장으로 추대, 교단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웠다.

또한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은 단독 출마한 김영걸 목사(양동부교회)와 윤택진 장로(대전제일교회)가 투표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다. 예장 통합은 선거를 통해 부총회장을 결정하고 나머지 임원은 총



회장이 임명한다.

이번 총회장이 임명한 임원으로는 서기에 조병호 목사(서울강남노회), 부서기 김성철 목사(서울서북노회), 회록서기 장승천 목사(대전서노회), 부회록서기 조현분 목사(양향노회), 회계 정성철 장로(서울강북노회),

부회계 송정경 장로(서울남노회)다.

한편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는 위임목사와 단일목사 제도 단일화, 부목사의 위임목사 승계 제한 완화,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등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예장합동선목, 김국경 총회장 만장일치 연임

“하나님께 사명받는 총회로 참된 역할 감당할 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선목)총회 제108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면목동 목양교회(담임 김국경 목사)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총회(행 2:1~4)'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대 만장일치로 김국경 목사의 총회장 연임을 가결했다.

총대들은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과 다원주의 혼합주의 등 신학의 순수성이 점점 퇴색되는 시대에 하나님께 사명받은 총회로 참된 역할을 감당코자 김국경 목사를 필두로 다시 한번 한 회기를 헌신하기로 했다.

총회장 김국경 목사는 취임인사를 통해

“우리 총회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키 위해 부름받은 교단이다. 한민족과 세계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앞에, 선교와 목회(선목)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의 사명은 그 숭고한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일이다.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채우자”라고 말했다.

총회 개회예배는 총회장 김국경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성찬예식, 회무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는 이날 108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가와 민족 앞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기도 했다.

동총회는 선언문에서 △개혁신의 정정보수신앙의 수호 △선교목회의 사명 감당 △영적지도자의 모범 준수 △품과 희망의 사랑 실천 등 총 4가지 주제로 교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 등이 담겨있다.



대한성서공회, 파키스탄에 성경 기증

취약계층에 성경 10,330부 보내, 큰 은혜 기대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순권 목사)가 수원제일교회(김근영 목사)의 후원으로 파키스탄에 '우르두어 성경' 7,330부, '우르두어/영어 대조 아랍어 그림 성경' 3,0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지난 9월 12일 가졌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는 “이 성경을 어떤 영혼이 받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받는 영

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손에 쥐는 영혼들마다 그들의 인생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파키스탄의 소수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을 통해 파키스탄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기대를 전했다.

파키스탄성서공회 아지르 무사탁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수원제일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이 성경이 파키스탄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 성경 한권이 한 명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라며 기대를 전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파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97%가 이슬람교 신자로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차별과 핍박의 대상이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폭탄 테러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 사람들이 향한 전도와 선교에도 큰 제약이 따른다.

예장(합동보수), 제108회 정기총회

“참된 제자되어 부여된 복음전파의 사명감당하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는 지난 9월 11일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소재 육도교회(담임 반정웅 목사)에서 '제자의 길을 가는 총회'라는 주제로 제10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에 반정웅 목사를 재선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전해숙 목사의 사회로 서울노회 노회장 장창대 목사의 기도, 회의록서기 권선일 목사의 성경봉독, 이문숙 사모의 영감 넘치는 특송, 총회장 반정웅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반정웅 목사는 요 15: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제자의 길을 가는 목회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포도원 밭의 농부이며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다. 우리가



좋은 가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하고 주님 안에 접붙이 있어야 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참된 제자가 되어 우리에게 부여된 복음전

파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예배는 찬양노회 노회장 최병화 목사의 헌금기도, 총회장 반정웅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부총회장 문인주 목사의 집례로 2부 성찬예식을 가졌다.

한국교회군선교연합회, 제258차 조찬예배

예성 주관으로 군선교 발전 다짐, 비전 2030실천을 위한 공동기도

한국교회군선교연합회 제258차 조찬예배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조일구 목사)의 주관으로 지난 9월 13일(수) 오전 7시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 리무이지니얼에서 있었다.

이날 예성 군총목사단장 김광식 목사(해병대 사령부)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예성 부총회장 김원철 장로의 기도, 회계 황제돈 장로의 성경봉독, 주님앞에제일교회 코람테 오찬양단의 찬양 후 총회장 조일구 목사가 마 8:5-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백부장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예성 군선교사회의 헌금찬양과 함께 서기 노윤식 목사의 봉헌기도가 있었고, 비전2030실천운동을 위한 공동기도 시간도



가졌다.

애국가 제창을 마친 후에는 부총회장 김만수 목사의 축사와 교단총무 이강춘 목사의 인사말,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의 감사의 말, 본회 총무 양재준 목사의 군선교사역보고, 후원원 김성희 실장의 광고 후 예성 군선교부장 임태진 목사의 조찬감사기도 순서로 마쳤다.

기감(연합), 목회자 수양회 갖고 말씀에 순종 다짐

‘하나님의 위로’ 주제로 회원 간의 소통과 단합의 시간 가져



기독교대한감리회(연합)감목 윤정자 목사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재 순성수양원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주제로 교단 목회자 수양회를 갖고 회원 간의 소통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수양회에 앞선 개회예배는 교육국장 김철수 목사의 사회로 사회국장 강용은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감목 윤정자 목사의 약 4~7-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께 복종하여 위로와 힘을 얻으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

윤정자 목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의 종들은 마음이 성전이기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비뚤다 펴게 되지 말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중요시하며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연회원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계속해 전대성 목사의 헌금기도, 김철수 목사의 광고, 증경감목 어승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수양회 오후 일정으로 순성수양관 1인소 주변부에 관람, 제복식사, 지방회별 책사대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수양회 2일차는 산책 및 숙소주변 정리, 오전예배 근흥면 신전도 투어, 수산물 쇼핑 순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고통받는 이웃과 사랑을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으로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이하 본부)는 지난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이틀날인 9월 10일, 동춘교회에서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장기기증 환자들과 나누고자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성도가 446명에 달하며 생명나눔을 향한 한

국교회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서울시 양천구에 소재한 동춘교회(김진수 담임목사)는 1, 2, 3부와 청년예배에 걸쳐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김진수 담임목사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설교를 통해서 “침자가대속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늘로 부름 받는 그날 우리

몸의 일부를 나누어 생명을 살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사랑 실천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강의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에 많은 성도가 함께해 달라.”라고 권면했다.

이에 감동한 성도 446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본부 박진택 이사장은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생명나눔 운동에 뜻을 모이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의 나눔이 고동 속에 해내는 이웃들에게 큰 위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생명의 말씀



이종만 목사
• (사)한기부협 전 대표이사

똑같이 부름을 받은 일꾼인데 어떤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일에 인정을 받은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인정 받지 못한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교적 희생과 섬김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비추는 참 되고 인정 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보호자 비뢰(순결한 또는 달처럼 빛나는이라는 의미는 진절하고 유덕한 초대교회의 큰 일꾼입니다. 성경은 비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비뢰의 생활과 행동은 그녀의 믿음과 성품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녀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비뢰는 충성스런 일꾼으로서 두각을 나타냈고 비뢰의 헌신된 신앙생활은 그녀로 하여금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맞으며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도와주도록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뢰를 보내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교회의 유익한 일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산실한 일꾼이 되려면 첫째, 진실해야 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라이다”(시 51:6)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예 17:14), “여호야קים의 자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

시느도다”(시 145:18)

둘째,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지적 능력을 말하며, 또 다른 뜻으로 근면, 정직, 절제, 순결, 덕행, 슬기 등을 말합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약속된 축복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찌기 일어나서 드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밋이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봉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대하 20:20)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자손은 이스라엘이 찬양을 부를 때 먼저 세일산 자손을 떨고 다음 저쪽끼리 쳐죽였더라 여호사밋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며 위기 속에서 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대하 20:34)1 여호사밋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께 간절히 간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대하 20:22).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뚜렷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움 길이고 그 청정은 다 평강이니라”(잠 3:13-17)

셋째,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생명을 비쳐 주의 일을 행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듯이 신앙의 성장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충만은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됩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신앙의 준비는 갖추어 졌으나 기도의 준비

가 부족하여 열을 동안 기도한 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넷째,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3:37),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불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창 31:40), “형제들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골 12:10-11),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후 11:2),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벧 3:13)

바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이 시대의 제사장, 애인자 노릇을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정

예정고신 로잔대회 참여 유보



예정고신 총회(총회장 김홍성 목사)는 내년 9월 열릴 ‘제4차 세계 로잔대회’와 관련해서 2024년 3월 말 교단의 입장 발표가 나올 때까지 참여 유보를 권고했다. 고신은 “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연구해 2024년 3월 말까지 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고신 총회의 참여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성결대, 섬의 날 공모전 수상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 관공개발학과는 한국섬진흥원 주최의 제4회 섬의 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9월 19일(화) 밝혔다. 이날 공모전에서 성결대학교 관공개발학과 손수영, 지연서, 최가은 학생은 ‘우리가 Green 탄소중립 여행-탄소 없는 섬 여행’을 주제로 수상했다.

예장 백석대신, 류춘배 총회장 취임



예장 백석대신 총회는 지난 9월 18(월), 19(화) 수원명성교회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회기 부총회장 류춘배 목사(경남중앙교회)를 총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류춘배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잊지않고 하나님을 이루어 가는 모두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은하 교수 창작동화·IT 특허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국어국문창작학과 이은하 교수가 창작동화에 IT를 융합한 ‘유아통합발달 교육문화 콘텐츠’로 실형실 창업에 나서 특허등록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교수는 ‘에듀 테인먼트 콘텐츠 제공 플랫폼 시스템’으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전범(戰犯) 모택동이 무슨 구세주(救世主)인가?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중수교31주년기념, 한·중도예전’에 1950년 북한의 김일성과 함께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대한민국을 적화(赤化)하려 했으며, 유엔군에 의한 북진통일의 길을 막았던 모택동의 흉상을 도자기로 만들어 국화에 전시하려 한 일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작품명은 ‘구세주(救世主)’였다니, 이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작품이 중간에 철회됐다고는 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가 간에 수교를 하고 문화적 교류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 흉악한 전쟁을 자기가 승리한 것으로 미화하는 원흉의 흉상을 버젓이 민

의 전당인 국회에 전시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휴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모택동은 소련의 스탈린과 함께 북한의 김일성을 도와서 중공 인민지원단을 6.25 침략 전쟁에 보냈는데, 무려 연인원 240만 명이나 된다. 중공군이 한반도에 투입되어,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짓밟고,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인물이다.

이 전쟁에서 모택동이 보낸 중공군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남북통일을 이루었을 것이고, 북한의 동포들이 오늘날 김일성 3대 세습의 공산 치하에서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1950년 6.25전쟁의 시작은 북한의 김일성이었지만, 그해 9월 맥아더장군

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계속 북진하여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이르렀으나, 1950년 11월 중공군의 본격적 개입과 함께, 그 이후 1953년 7월 휴전이 될 때까지 약 3년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유엔군과 중공군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전시회는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 김민철 의원의실과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재단, 협성대아시아교류원, 주한 중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했다고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일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시회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국회에서,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의정부에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경기 여주에서 전시된다고 한다. 그러나 전시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시되는 작품에 문제가 있어야 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나라는 불행할 자초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일빠진 생각을 갖고 있으니 큰일이다. 강한 적이 와도 국민이 단결하면 능히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부터 정신 차리지 못하면, 답이 없다.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온 이적(利敵)사상을 몰라리지 못하면, 우리 국가의 근저지를 어찌 능히 보전(保全)하겠는가?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문화이다. 문화는 경계의 빗장을 풀게 하고, 자기 보호의 문을 스스럼없이 열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번 행사에서 모택동의 흉상 도자기를 전시하려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이 빠졌던 것이다.

아무리 한·중수교를 기념하고 문화교류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음은 왜 구별하지 못하는가?

더군다나 국회 안에서 이런 작품을 전시하려다 문제가 되니, 슬그머니 차워버리는 은근슬쩍 자세로는 안 된다. 분명히 주최 측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먼저 정신을 뺏기면, 나라도 뺏긴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활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암포럼으로 세계특허받음)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벌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제작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태국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도록 뜨겁게 기도

부흥사회 태국 단기선교 및 해외성회 개최



예하성 부흥사회(회장 김기진 목사)는 지난 9월 17일(주)부터 22일(금)까지 태국 단기선교 및 해외성회를 개최하고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부흥사 태국의 선교현장에



서 비자빔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복음화율이 저조한 태국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도록 뜨겁게 기도했다. 20여 명의 부흥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태국 방콕 인근의 반부야교회, 논쑈분교회, 릿통개우교회, 방콕 안디옥교회(간학봉 선교사 사무) 등지에서 연일 장거리 이동으로 육체적으로는 피곤할만도 한데 전

혀 피곤한 기색 없이 오히려 새 힘을 얻은 부흥사 회원들은 각 교회마다 전심을 다해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진 기도시간에는 부흥사 회원들 모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태국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하며 믿음이 바로 세워지도록, 질병, 연약, 고통에서 놓여남을 인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 주었으며 성도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문제해결을

응답받고 간증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이번 성회일정에는 신재영 목사, 김기진 목사, 최정식 목사, 김건수 목사 등이 말씀을 전했으며 부흥사회원들 모두가 찬양인도 대표기도, 사회, 성경봉독 등 각각의 순서를 맡아 뜨겁게 찬양하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은혜로운 일정을 마쳤다.

월례회 갖고 교단과 지방회 위해 기도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문찬우 목사)는 지난 9월 12일(토) 오전 10시 30분 순복음침종은교회(담임 오세준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전한배 목사(서광중앙교회)의 사회로 문찬우 목사(여호수아교회)의 대표기도, 전임 교단총무 이경진 목사(다사람교회)의 마 7: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항금물'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우광덕 목사(선한목자교회)의 헌금기도, 탁정진 목사(선교회)의 축도, 강인덕 목사(순복음본향교회)의 폐회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회원들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윤득주 목사)는 지난 9월 26일(토) 오전 11시 포항시 남구 동해



면 일월로 41번길 5-6에 위치한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김은수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경덕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 부회장 김은수 목사의 대표기도, 사모회의 특송, 오경덕 목사의 성

경봉독, 지방회장 윤득주 목사의 롬 1:16-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요구(믿음)'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 합심으로 기도하고 지방회 회계 황용식 목사의 헌금기도 후 전임지방회장 최용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 서기 성기찬 목사의 회원 호명 후 지방회장 윤득주 목사의 교단 지방회 보고와 인권 토의를 한 후 다음 월례회에 대해 안내했다.

이후 지방회원들은 순복음갈릴리교회에서 점진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2023년 제9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설립 13주년 기념예배

(사단법인)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는 지난 9월 11일(월) 2023년 제9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설립 13주년 기념예배로 충남 아산시 청운로 139-5에 위치한 온양시온감리교회(김수홍 목사, 본회 본부장)에서 개최했다.

1부 기념예배로 임정대 목사(삼일회장, 둔포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 서석웅 목사(아산성결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본회 본부장 김수홍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 목사는 수 5:13-15 말씀을 본문

으로 '누구를 위하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6.25라는 민족 역사의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이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에 도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문은 여호수아가 예리고성을 공격 D-day에 어떤 사람이 순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들의 편이냐?" 물어볼 때에,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라는 말을 듣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무슨 명령이든 들겠습니다"라고 했듯이,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주님의 휘하에 있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경적 핵심적 가치를 위한 그리스도의 용사" 이기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대범 목사(수철리장로교회)의 헌금기도, 본회 대표고분 진응운 목사(온양은혜와진리교회)의 축도로 1부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에는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택민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예방중앙교회)는 환영인사에서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제13주년 기념예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주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귀하기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 줄 믿으며 함께 조찬기도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설립 13주년을 맞아 이명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목회자였음에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축했다.



또한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생명샘동전교회)는 "13년간 중단되지 않고 이어진 것은 귀한 일이며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편견을 갖지 말고 중심을 잘 잡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의 달려갈 길을 위해 변함없이 나아가자"고 축했다.

그리고 아산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박덕수 목사(목암제일교회)의 권면의 순서에서는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말하고, 준비한 봉투로 선물하며 2부 순서를 마쳤다.

그리고 이어진 3부 기도회는 이광로 목사

(예테결혼대표)의 사회로 주제별 기도순서를 진행했다. 1)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김재영 목사(씨도위원, 한우리교회), 2)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황석영 목사(삼일회장, 인주사랑교회), 3)아산시 지도자들을 위하여, 황기식 목사(삼일회장, 아산동산교회) 4)경찰복음화를 위하여, 조창훈 목사(경찰인재개발원교회) 5)아산시 복음화를 위하여 최순식 목사(씨도위원, 새원교회)의 기도과 전체 합심기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특히 합심기도 시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전과 평화를 위해서, 모

로코의 강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없기를,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담고 행복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어서 사무총장 이진희 목사(주님의제자교회)의 광고에 이어 사진 촬영이 있을 후, 조찬 장소로 이동해 온양시온교회에서 준비한 조찬을 나누며 교제 시간을 갖고 제10차 조찬기도회 장소인 수철리장로교회(정대범 목사)에서 만나기로 하고, 제9차 조찬기도회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가운데 마쳤다.

대만 현지교회 31명의 목회자, 장로, 집사 초청 세미나

부산지방회 목회자들과 목회자세미나 개최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 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는 지난 9월 20일(수)-21일(목)까지 양일간 대만의 현지 장로교회인 동화교회, 박자교회, 리기교회, 차산교회, 신원교회, 남세교회, 와루루교회, 삼미교회, 포도원교회, 태산교회, 타이난 하나님의성회교회 등 31명의 목회자, 장로, 집사들을 초청하여 부산지방회 목회자들과 목회자세미나를 가졌다.

대만의 이 교회들은 2010년부터 코로나 전까지 정기영 목사가 해마다 1-2회 대만을 방문해 집회를 했던 교회들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화의 차이로 양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이해하지는 않을가 하는 염려가 무색할 정도로 부산지방

회 총무 김태주 목사의 인도로 계속된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참석자들 모두 감동과 은혜충만, 성령충만,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체험했다.

부산지방회장 정기영 목사는 마 16:17-18 말씀을 본문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탄과 귀와 귀신들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패배한 자들이며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무장해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령 받은 거듭난 자가 되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해치는 귀신들을 담대하게 물리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대만 현지교회 목회자, 장로, 집사 초청 세미나를 주관한 부산지방회와 순복음세움교회 정기영 목사는 대만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정성을 다해 세계가 인정하는 K푸드로 한국의 맛을 대접하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했다. 대만 성도들은 대만 전통복장을 입고 자국의 문화를 함께한 부산지방회 목회자들에게 설명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양일간 은혜 가운데 계속된 세미나를 통해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는 대만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다짐하고 대만에 돌아가서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을 본받아 대만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11차 전국사모회단합대회

강사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병묵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 모시는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폭염으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사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존경하는 사모님들!

심신의 휴식과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제11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사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 33:29a)라는

주제로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

전국의 예하성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주의 사랑으로
친교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얻고, 합심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들의 기도 후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신명희 -

주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 33:29a)

| 일 자 | 2023년 10월 16일(월) 오후 2시등록, 3시 시작 ~ 18일(수) 오전 10:30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 (왕림2길 76)

| 대 상 | 교단 산하전국 교회 목회자 사모

| 후원계좌 | 농협 352-1317-6813-13 (김숙향)

| 문 의 | 총무 김세희 사모(010-2610-3816)

2023 전국사모회 전직회장단

전임회장

김양란 사모
(모함안디옥교회)

전임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전임회장

신동신 사모
(정신교회)

전임회장

차추련 사모
(인동성곡교회)

전임회장

윤금자 사모
(목양제일교회)

직전회장

김귀순 사모
이세이순복음교회

고문

최해선 사모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2023 전국사모회 임원진

1부회장

이을순 사모
(갈릴리온소망교회)

2부회장

김숙향 사모
(안성평강교회)

총무

김세희 사모
(과산순복음교회)

부총무

조은숙 사모
(경철청교회)

서기

나명숙 사모
(성주반석교회)

부서기

김길순 사모
(순복음성산교회)

재무

조동숙 사모
(오성사랑교회)

부회계

이순선 사모
(시온순복음교회)

1. 시작시간 : 2023년 10월 16일(월) 오후 2시부터 등록, 2시 40분에 찬양 시작
2. 마침시간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3.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4. 일 정 : (일정은 시간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일(월)	17일(화)	18일(수)
08:00~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10:00			찬 양
10:00~11:00		신앙유산탐방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폐회예배 말씀:김병묵총회장목사님
11:00~12:00		점심식사	
12:00~13:00			
13:00~15:00	등 록	회복의산책 (용인농촌테마파크)	
15:00~17:30	O.T. 지방회소개, Ice Breaking		
17:3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21:00	개회예배 말씀:정책위원장님	간증과 콘서트 (CCM가수 박종호장로님)	

5. 광 고 :

- 1) 숙소에 침구가 비치되어 있는데, 개인침구를 사용하실 분은 가져오셔도 됩니다.
 - 2) 16일(월) 역에서 전원성전까지 shuttle 안내
 - ① 광명 KTX역 - 오후 1시, “서편”방향으로 나오셔서 2번출구(Gate)앞 횡단보도를 2번 건너셔서 잠시 기다리시다가 사모회차 탑승
 - ② 수원역 - 오후 1시 30분, 수원역 4번출구 나오셔서 조금 더 올라오시면 “노보텔 엠베서더”앞 버스정류장에서 사모회차 탑승
- * 역에서 사모회차량을 이용하실 사모님께서는 꼭 미리 총무에게 통보하여주셔서 차량운행봉사자와 연락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사모님들 도착시간이 서로 다르시기 때문에 역안에서 편히 기다리시다가 정해진 시간까지 위의 장소로 늦지 않게 이동해주세요. 주정차가 금지되어있으므로 사모님들께서 모두 모이시면 차량봉사자가 사모님들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 전화 : 010-2610-3816 (총무 김세희사모), 010-3596-8757 (서기 나명숙사모)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우리는 WCC와 WEA 철저히 배척”

한기총 입장문 통해 복음주의 정체성 주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단체의 신앙적 입장을 발표하고, 신앙 정체성이 복음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한기총은 지난 9월 25일(월) 대표회상 및 회원사 일동 명의의 신앙 입장을 발표하며 “한기총의 정체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기총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에 한기총의 입장을 확실하게 선언한다”고 했다.

덧붙여 “한국교회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지상교회에 부여된 공동사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복음주의적 신앙과 결단을 확인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기독교 앞에 우리의 신앙적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다”며 “또한 이와 함께하는 모든 교단과 교회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국기독교의 발전과 세계선교를 위해 함께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기총은 W.C.C와 WEA를 철저히 배척하고,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운동을 철저히 배척하는 한편, 동성애를 철저히 배척하고 복음주의적 신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배척하고,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운동을 철저히 배척하는 한편, 동성애를 철저히 배척하고 복음주의적 신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안전과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

부산동지방회 월례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조정화 목사)는 지난 9월 14일(목) 부산시 동래구에 위치한 순복음주전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월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전미교회)의 사회로 총무 조은혜 목사(순복음은혜사랑교회)의 대표 기도, 재무 안병식 목사(순복음장성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안 목사는 출 32:25~29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역설’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이란 이전의 사고 체제, 철학,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것이다. 즉 말씀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고통 고난 까



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회계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한글 기도, 부회장 윤혜영 목사의 광고 후 지방회장 조정화 목사(순복음주전미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끝나고 이어진 월례회는 지방회장 조정화 목사의 인도로 각종 회부물처리한 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회원교회와 회원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후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후 순복음주전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후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제4차 NAP 초안,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복음법률가회 · 동반연, 세미나 개최

복음법률가회와 동성애 · 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9월 21일(목)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NAP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신효성 박사(법학박사, 차별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해철 소장(가치세움연구소),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엘플러스 대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지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명재진 교수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차별금지법 찬성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명 교수는 “제4차 NAP는 그동안 많은 학계와 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 왔고,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반대 심해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나타내는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NAP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 최종적인 수정에 차별금지법 찬성의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발표된 NAP의 문제점은 현행 법제도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인권계획이라는 점에 핵심이 놓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은 동성혼의 금지이며 이러한 우리 법제에 맞지 않는 NAP 성소수자의 보호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동성혼 금지 국가에서 동성혼을 부추기는 성소수자 인권강조는 향후 우리 법제와 충돌하여 심각한 문제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명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추구하는 점에서 현

법적 근거가 있어 보이지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금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해 버려서 위험이 된다. 자유와 평등은 하나의 파이를 나누고 있어서 평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자유가 소멸된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한 한계의 법제도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신효성 박사가 ‘제4차 NAP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신 박사는 “제4차 NAP 수립 공청회 초안은 67가지 추진과제로 나누어 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에서 구체적 자유권으로 1)생명권 2)신체의 자유 3)언론권 4)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5)표현의 자유 6)결사의 자유 7)사생활의 자유 8)거주와 이전의 자유 9)인격권 10)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11)잠정권”이라고 했다.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강행과 홍준표 시장의 이슬람 포용 논평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학가 거주 밀집 지역인 대현동 모스크 건립이 주민을 몰아내고 계도 지역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대구 경북대가 위치하고 있는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축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강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대구 대현동 주민, 대구 시민, 한국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 외면하고 “이슬람 포용”을 언급하며 주민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그리하여 거주지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 주민 항의에 의해 중단된 건축을 강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주권침해법국민대책위원회(조사의뢰기관)가 지난 2023년 6월 3일 전국단 18세 이상 남녀 성인에게 문의하여 1004명 응답자(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에 의한 여론 조사 결과는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무슬림 테러 심각성에 대하여 주민들 65.8%가 (매우 심각 27.9%, 심각 37.9%)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외교부를 통해서 대현동 주택가 이슬람 사원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간 유엔인권이사회는 과도한 인권개입으로 동성애 인종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확산시켜 온 바, 대현동 주민들의 거주권 침해는 도외시키고 일방적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주의 주장만을 인용하고 있다.

살통내비는 그동안 프랑스 영국, 독일 등지에서 일어난 거주지 자생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에게 의한 테러에 대하여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왔는데 이제 대한민국 대구가 이슬람의 선교 전략기지가 됨을 느끼면서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택가 모스크 건립 허용이 초래할 각종 사회적 갈등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각성하고 이를 중단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해와 규범 아래서 제약받는다

건축을 추진한 장소는 가정집 11곳에 둘러싸인 주택 밀집지역 한복판이자 도로가 없는 땅지로, 북구청의 건축허가는 주민들 공익에 반한다. 그리고 대구 대현동 대학가 모스크 건립은 경북대에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 유학 온 이슬람 유학생들이 의도적인 목적으로 주택 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슬람 사원은 한국인에게 생소한 종교로서 더욱이 지역사회의 계도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무슬림과 이슬람 사원이 오늘날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세계선진국에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테러의 근거지 역할을 하는 역기능을 미루어 볼 때 이슬람 사원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종교적 유산이 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택 중심지에서 모스크 사원 건립은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현재 갈등은 지역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건립은 중단되어야 한다.

2. 홍준표 시장은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는 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그의 이슬람 사원 건축 허용 행위가 그릇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밀집지역에 종교사원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홍시장은 “기독교는 예수를 선지자로 모신다”라는 이슬람의 교리를 말하면서 예수를 이슬람교의 선지자로 왜곡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심을 부인하는 무지다.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알라 유일신교이나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삼위일체 신관을 갖고 있다. 수니파 이슬람은 모두 온건파라고 했는

데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그는 대현동 모스크 건축 반대 운동을 대현동 주민들의 인권말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니라 이슬람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반감으로 몰아 종교간 분쟁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는 싱가포르의 한두교 사원을 실제로 들면서 한국 기독교를 타종교를 비판하고 증오하는 우월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싱가포르가 이슬람도 시국기로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일찍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배척하는 정책을 구현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3. 홍준표 대구시장은 종교의 자유를 말하나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진정한 시정을 할 수 있다.

국민주권침해법국민대책위원회(조사의뢰기관)의 주민 조사에 의하면 “주택 밀집지역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해 주민들 73%가 주민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과 협의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금 공사 진행중에도 1월 5회 기도, 새벽과 밤 시간 마이크 사용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라마단 40일간 70~80명이 밤 시간 음식 냄새를 풍기며 확성기를 틀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이슬람 모스크가 건립되면 하루에 5차례 기도회가 진행되어 많은 무슬림들이 대현동 주택가로 몰려들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

홍준표 시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는 주민들에게 이슬람 포용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입장에 대하여 주민들 58%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대현동 주민들은 사원 건축을 통해 인근 지역에 이슬람 타운이 조성돼 주민들이 강제 이주될 가능성에 상당한 두

려움을 갖고 있다.

4. 홍준표 대구시장의 기독교에 대한 발언은 정치지도자로서의 부적절한 것이며 왜곡된 이슬람 지식은 시정되어야 한다.

홍준표 시장의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을 타종교를 비판하고 증오하는 우월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그의 종교문제 언급에 대하여 주민의 58.9%가 정치지도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응답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주민반대의 대현동 건축 부지를 중단시키고 주민들이 납득하는 부지를 찾는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당초 북구청이 제시한 중재안대로 애초 사원 부지를 북구청이 수용하고, 경북대 인근에 사원 건축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스크는 문화적으로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받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홍 시장은 ‘수니파 이슬람은 모두 온건파’라고 했으나,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언급이다. 수니파는 오늘 이슬람 원리주의를 산출했는데 이것이 와하비즘(Wahhabism)이다. 와하비즘은 이집트에서 살라프 운동(Salafi movement, Salafism)과 테러 조직인 범이슬람세력의 최대 이슬람운동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The Muslim Brotherhood)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테러집단인 20세기 오사마 빈 라덴이 창시한, 극단적 살라프파 무슬림에 의한 국제 무장 세력망 알카에다(al-Qaeda)와 수واف은 학살을 지행한 IS(Islam State, 이슬람 국가)가 나왔다.

5. 유엔인권위원회가 대현동 이슬람사원 반대를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은 대현동 주민들과 거주권과 재산권을 무시하는 생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대현동 주택가내 모스크를 건축하기 전 5~6년 동안 대현동 주민들은 경북대의 이슬람 유학생들을 배려하고 우호적으로 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밀집한 주택가 한가운데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면서 주민들의 집 마당 앞에 세워지는 이슬람 사원 건물로 인하여 오전과 오후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집안이 항상 어둡고 신축하는 이슬람 사원의 건물에 4개의 큰 창문이 만들어져서 일상의 생활에 큰 피해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공사를 짓는 과정에 담이 허물어지고 주민들의 집 벽이 뚫렸으나 이슬람 사원측은 오히려 항의하는 주민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가하고 당국의 중재안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를 두고 인권침해 운운하는 것은 이슬람 사원과 일부 세력들의 입장만을 선통하는 비윤리적인 처사이며 오히려 대현동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는 재산권 및 거주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다. 당국과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편향된 인식과 대현동 주민들의 고통을 강력히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6. 한국교회와 사회는 21세기 들어와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한 테러 사건에서 교훈 받아야 한다.

2020년 10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니스에서 휴가 테러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한 명은 목이 잘려진 참수를 당해 충격을 주었다. 용의자는 체포된 후에도 아랍어로 ‘알라 후 아크바르(신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반복해서 소리쳤다. 무슬림 테러범은 북아프리카 튀니지 출신 이주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성당 안에서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10월 16일 파리근교에서 일어난 테러도 이슬람교 예언자의 종자만화와 관

련하여 일어났다. 사들리 에브도의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표현의 자유’로 기르친 중학교 교사 사무엘 파티가 체첸 무슬림에게 무참히 살해된 것이다. 이 사건을 두고 유럽과 이슬람 세계 지도자들은 서로를 향해 여과 없이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유럽에서 일어난 이슬람 테러 사건은 앞으로 수십년 후에는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시해주는 것이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은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날 불행한 일들을 예언해주기 때문에 이를 정책적으로 막아야 한다.

7. 한국교회는 법외단적으로 대구 대현동 이슬람 건축 반대에 대하여 홍준표 시장에게 공격 태도를 표명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북대 캠퍼스가 있는 대현동 거주 밀집 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립은 앞으로 한국사회에 이슬람 테러를 야기시키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이 건립을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평화적 이슬람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슬람은 항상 원리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 이슬람을 대하는 것과 제도적으로 이슬람을 허용하는 것과는 분리시켜야 한다. 이슬람이 우리 사회 지역에 5% 이상 유입하는 것을 경계하는 정책을 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은 홍준표 시장을 공격적으로 만나 반대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의 편향된 인권의식에 대항하여 외교 및 민간 채널을 통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동시에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대현동 주민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지켜야 한다.

2023년 9월 11일
살통을 꾸르는 내버행동

선교와 협력위한 협약 체결

강기총-한국기독교언론협회, 적극 협력키로

강원특별자치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양병환 목사, 강기총)와 한국기독교언론협회(회장 노곤채 목사)는 지난 9월 21일(목) 선교와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대표들과 언론협 임원들이 함께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교회내의 활동과 사역의 홍보에 상호 우선적 호혜(互惠)로 합의했다. 언론협은 강기총과 18개 시·군 연합회가 제공하는 소식 및 내용을 회원사의 매체를 통해 보도하며 선교에 이바지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식에서 강기총 양병환 대표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독교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언론협 노곤채 회장은 “언론을 통해 교회의 선한 사역을 기록하고 이전에 있던 강기총의 축적된 선한 역사도 되짚으며 복음의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기독교언론협회는 본보를 비롯, 기독교 유력언론



10여 회원사가 속해있으며, 한국 기독교 발전과 선교의 확장을 위해 언론의 역할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월드비전, 추석맞아 ‘특식 키트’ 제작

취약계층 850여 명에 ‘추석 특식 키트’ 전달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추석명절을 맞아 결식우려 아동 및 저소득 취약계층 850여 명에 ‘추석 특식 키트’를 전달했다.

추석 특식 키트는 월드비전 ‘사랑의도시락’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락 지원이 중단되는 명절 연휴기간에도 결식우려아동들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석 특식 키트는 추석 명절음식과 약밥 등으로 구성됐으며, 월드비전 사랑의도시락사업장 6곳을 통해 결식우려아동 및 취약계층 중 856명에게 전달됐다. 월드비전은 특식 키트를 지원받은 수혜 가정들이 향

후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식 키트 내 2개의 약밥 밀키트 중 1개를 이웃과 나누는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식 키트를 전달받은 수혜자는 평소 고마웠던 이웃이나 독거어르신 혹은 장애인 가정에 본인의 약밥 키트 1개를 나눴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취약계층이 매 끼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추석 특식 키트 지원을 통해 끼니 걱정 없이 명절을 즐기며, 또 다른 이웃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단비에 온산아가 목마름을 해결하듯
성령의 단비에 목마른 심령 은혜로 적시네.
오늘의 믿음의 용사들 부르셔서 사명 감당케 하네.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교회 삼으시고,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곳 구원의 방주 생명을 주셨네.

예수항기로 피어난 교하여, 백합화여,
여기 우리 마음에 활짝 피었네.
옥합의 향기여,
그대들의 비움이 오늘을 낳았도다.
옥합의 기쁨비여,
그대의 세움이 한 송이 꽃을 피우네.

지선협 여성대표 총재임은선 목사님
한국교회 신실한 종이라.
주의 종들의 영성을 깨우치는 지여,
그대는 사랑의 사도라.

보라 지금 은혜 받은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상처받은 이 시대의 아픔 치료하게 하소서.
상처받은 이 시대의 생명 구원하게 하소서.
능력선교교회 통하여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가족세트전도 집회 총재 박영수 목사,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물심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는
임은선 가족세트 여성대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화 매개체를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아랑곳 않고
겉옷이 흠뻑 젖도록
한 영혼 구원 가족세트전도
구원열차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차장 되시어 복음의 햇볕을 들고
전도의 깃발을 쫓는다.
가족세트전도 총괄본부장 사인 이수 교수



“이웃을 위해 몸과 마음을 나눈 사람들”

2023년 리빙도너 캠페인, 신장기증인에게 감사와 응원의 선물 전달

“신장병으로 고통받는 제 친구처럼 어디선가 신장이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신장기증을 결심했어요” 15년 전, 조애영 씨(50세, 여)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 신장이 망가져 10년 넘게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친구의 사연을 듣게 됐다. 그 순간, 망설임 없이 기증을 결심했지만 친구는 신장이식만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신장기증이 좌절된 후, 친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떠올린 조 씨는 생면부지 타인을 위해 신장을 기증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2009년 7월 16일, 오랫동안 신장병을 앓고 있던 한 50대 여성 환자가 조 씨의 신장기증으로 새 삶의 기적을 만났다.

1991년,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의 이사장인 박진탁 목사가 국내 최초로 타인을 위해 대가 없이 신장기증을 한 이후, 지금까지 조애영 씨처럼 본부를 통해 일일식도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신장 하나를 나누는 생존 시 신장기증인(이하 리빙도너)은 969명이다. 신장의 위치에 따라 갈비뼈

절단수술까지 감내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기증인 중에는 장기기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의 오해 어린 시선을 받은 이들도 적지 않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실전한 신장기증을 장기 매개로 오해하거나 유별난 사람으로 평가 받는 일을 겪은 것이다.

이에 본부는 신장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여 리빙도너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 초부터 ‘위드 하어로, 리빙도너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을 통해서 기증일 축하카드 발송과 명절 선물 전달 등을 계획한 본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리빙도너에게 다양한 기관과 기부자들의 마음이 담긴 ‘응원박스’를 배송했다.

응원박스에는 광동제약, 단에드워드코리아, 로얄스킨, 샘표, 오설록 등 기업의 물론 후원과 EFN, 네이버 해피빈 기부자, SGI서울보증 강남분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조성된 기부금으로 마련된 비타민, 주방세제, 선풍기 및 화장품, 해바라기유와 차, 한과 등 추석맞이 선물이 담겼다. 더불어 신장



이식인들의 감사 편지와 캠페인을 통해 모인 응원 댓글이 담긴 책지도 함께 발송됐다.

추석을 한 주 앞두고 본부 응원박스를 전달받은 이태조 목사(62세, 남)는 “리빙도너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어느 때보다 고마움이 넘치는 명절을 보낼 것 같다.”라며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나누는 일에 더 힘쓰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초저출생고령시대 커뮤니티 아동돌봄 구축방안

12차 지혜의 숲 100인 포럼이 (재)대한민국역사와 미래재단(이사장 김형식)주최로 9월 21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복지분야포럼에서 장현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출대본 기획위원장)는 ‘초저출생고령시대 커뮤니티 아동돌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현일 원장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1.55명에 1/2도 되지 않으며, 전 세계 288개국(평균 2.3명) 최하위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는 심각한 인구지진 국가이

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얹혀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생산인구(15-64세)가 7년 후 233만명(총남인구), 9년 후에는 333만명(생산인구)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구조와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초저출생의 요인으로는 ‘결혼 자녀의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곤란’ ‘양육비용’을 비롯 ‘고용 불

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미래 불확실성 증가’ 등을 꼽았다. 장 원장은 “아동 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의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중시하는 생명존중운동이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생 국가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 3년 안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분사 싱킹(MoonShot Thinking)과 문샷(MoonShot)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교회위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일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마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신앙적인 성공 기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공해라” 혹은 “성공했구나”라고 인사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사업의 성공, 학업의 성공 등등 성공적인 어떠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위한 지침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생활수칙,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세미나가 있기도 합니다.

모두 성공이라는 수식어로 포장합니다. 성공이 좋은 것임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성공보다 앞선다고 봅니다.

수확에서 팔호()안에 있는 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팔호()밖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절대 값이 달라집니다. 팔호 밖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결과가 마이너스입니다. 수확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성공했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눈에 아니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성공이어야하고 그것은 곧 신앙생활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신앙생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불행이고 실패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기준이 아니라 신앙적인 성공 기준을 세우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신앙적인 성공 기준이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 재산을 많이 남겨놓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행하는 삶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 진리의 교회 권사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주께서 생명 걸고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던 한 영혼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주께서 기대하시며

설렘 속에 창조하신 한 영혼을

울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일을

보기도 전에 한 영혼을 어둠 속에

감히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이 그들을 지나간 것처럼

상처 받은 마음에 새살이 돋게 하소서.

주께서 부활하여

우리게 소망이 되신 것처럼

일어나 넘어짐의 유익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부활하여

우리게 빛이 되신 것처럼

어두움 이기고 나오게 하소서.

주께서 부활하여

우리게 만남의 기쁨을 허락하심 같이

막힌 담을 허무사 화목케 하소서.



한 자매님이 구역장인 나로 인해 실족하여 구역에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알게 되었다. 맡겨주신 영혼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이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온다.

사설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역대 대통령 중에 갈라치기를 즐겨한 사람은 없었다. 잘했던 못했던 통합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았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갈라치기를 한 대통령이 최근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데에는 이문이 없다. 노골적이었다. 표가 나게 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혹했지만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앞에 글자 하나가 빠져 있었다. '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사람이 먼저라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동이었다. 또 하나는 항상 자화자찬이 주를 이루었다. 경제가 가라앉고 있었어도 '물들이 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곤 했다.

27차례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지만 '부동산만 큰 자산 있다'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과만 잘 되면 다른 것은 갯만 쳐도 괜찮다라는 말 때문이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에 올인 했지만, '삶은 소대거리'라는 조롱만 받고 말았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9.19군사합의도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퇴임 후 상경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9.19군사합의의 5주년 기념식을 했다. 그러면서 9.19군사합의가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며 지금의 대북 정책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해괴한 말을 했다. 이미 지상 보도를 통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9.19군사합의는 북한에 전적으로 유리하고 우리에게만 아주 불리한 합의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9.19군사합의를 폐기하면 안 된다며 군사합의가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고 말을 했다.

북한은 9.19군사합의를 하고도 수시로 합의를 어겼지만 우리는 곧이곧대로 지켜면서 온갖 손해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북의 침공 때 무방비 상태에 빠질 위기에 있는 게 9.19군사합의다. 북한은 2018년 6월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각각 60km까지 전투기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평양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서울 등 한국 수도권 상공만 해당되는 일이다.

즉 9.19합의는 북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였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끊임없이 9.19 합의를 어겨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반을 못본 채 했다. 폐

기해야 할 합의를 기념한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경을 했고 전 정부 인사들이 모여서 기념대회를 한 것이다. 경제도 자신이 국정을 맡았을 때는 잘 돌아갔지만 지금은 형편없다고 했다. 건국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짊어진 부채보다도 자신이 국정을 맡았을 때 5년의 부채가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그때 경제가 좋았던 시절이라고 했다.

우주가 자신을 중심으로 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갈라치기의 명수답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퇴임한 대통령 중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국정에 이래라 저래라 한 대통령은 없었다. 마치 상황이라든 되는 양 훈수를 두고 건건이 간섭과 개입을 하곤 했다.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놓고 누구와 조금도 틀리지 않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수시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러나 단식 중에 체포 동의안에 부결을 해달라고 자신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반에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과 1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고 했다. 도무지 믿을 게 한 군데도 없다. 어제 한 말 오늘 다르고 아침에 한 말 저녁에 다르고 면전에서 한 말 돌아서면 다르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말을 하는 정치인은 처음 보는 광경이다.

갈라치기가 왜 나쁜가? 사회통합의 방해물이기 때문이다. 영화배우 이영애 씨가 최근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기부금을 낸다고 하자 친야 지지층들이 벌떼 공격을 했다. 사유 재산을 어디에 사용하든 어디까지나 그것은 이영애 씨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인데도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이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 마오쩌둥의 중국, 스탈린의 소련, 호예이니의 이란, 푸틴의 러시아, 김정은의 북한에 서만 통하는 갈라치기가 대한민국 땅에서 버젓이 통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피로감에 젖어 있다.

"말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펴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렘 17:9,10)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종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여학생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임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임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여학생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중외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년 부흥사회 영남동지역 부흥성회

| 일 시 | 2023년 10월 22일(주일)~25일(수) 매일 저녁 7시

| 장 소 | 언양순복음교회 (황용식 목사: 010-3159-2083)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성안2길 53-8



| 강사 | 신재영 목사 · 임기설 목사 · 김기진 목사 · 조길수 목사

| 사회 및 대표기도 | 부흥사회 소속 회원목사님들

| 축도 | 영남동지방교회 소속된 지방회 전임회장들 및 현임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